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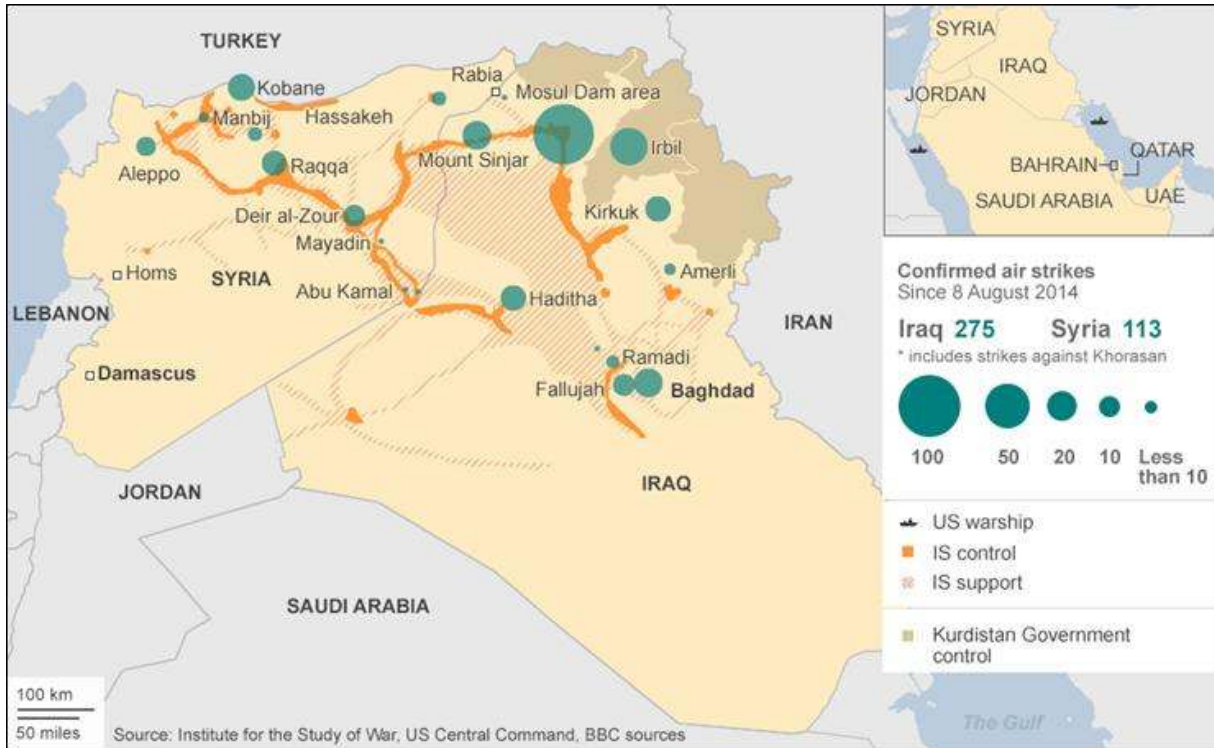
# 이라크 IS(Islamic State)사태 관련 최신 동향

두바이사무소  
2014. 11. 16.

## 1 이라크 IS 사태 현황

- '14년 6월 IS 반군의 이라크 제2의 도시인 모술 점령을 계기로 이라크는 2003년 이라크전 이후 또 한번의 정치적 격랑기에 돌입
  - 시아·수니·쿠르드 각 정파 간의 위기의식으로 정부 구성 논의가 급진전, 9월 초 신정부가 출범했지만 국방·내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적 교착상태로 온전한 거국 통합내각 구성을 완결하지 못한 상황
  - 북부와 서부의 수니파 부족들 역시 중앙정부에 확신을 가지지 못한 상태로, IS 격퇴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시아-수니 간의 반 IS 공동전선이 구축되지 못한 실정
  - 반면, IS 반군은 모술 등지에서의 공개처형 등을 통한 공포정치로 피점령지역에서의 정치적 저항을 봉쇄하는 데 성공
  - IS 반군이 국제사회의 지원이 집중되는 쿠르드군에 밀려 수세 국면에 돌입하면서, 정부군-ISIL 간의 전투가 살라후딘주 남부와 안바르주에서 빈발하는 추세
  - 이로 인해 반군 전선이 수도권 가까이에 형성되고, 바그다드 외곽에 대한 반군의 공격·교란테러 활동이 활성화되는 상황

전투 현황(BBC)



## 2 IS사태가 이라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이라크내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위축
  - IMF에서는 World Economic Outlook 최신판(10월)을 통해 2014년도 이라크 경제가 -2.7%가량 위축될 것으로 전망

이라크 주요 경제지표 추이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실질GDP 성장률	5.5	10.2	10.3	4.2	-2.7
국제수지 (GDP대비)	3	12	6.7	-0.8	3

- 특히 IS 반군이 이라크 북부(쿠르디스탄 제외)와 서부를 장악하면서, 이 지역 주요 프로젝트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워짐

## □ 석유 수출 어려움

- 모술, 키르쿱 등 북부지역 유전산 석유의 경우 키르쿱-터키 송유관에 대한 사보타지 활동의 증가로 인해 정상적 수출에 애로를 겪는 상황
  - 다행인 것은 이라크 석유 수출의 대부분이 IS 반군이 장악하지 못한 남부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

이라크 2014년 대외석유수출동향

구분	수출실적		배럴당 평균가격(달러)
	백만 배럴	백만 달러	
1월	69.1	7,074	102.373
2월	78.4	8,001	102.054
3월	74.3	7,507	101.036
4월	75.3	7,582	100.691
5월	80.8	8,077	100.691
6월	72.8	7,470	102.963
7월	75.7	7,742	102.272
8월	73.6	7,172	97.446

자료원: 이라크 석유부

## □ 생필품 공급 어려움

- 특히 북부와 서부가 반군에 점령당하면서 이 지역은 물론 이라크 전역으로의 정상적인 생필품 공급에 애로를 겪고 있음
  - 이 지역에서의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이 재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 과거 주된 수입 운송로였던 터키를 통한 수송로가 막혀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경색현상 발생
- 이 같은 수출입 애로로 인해 바그다드 등지에서는 연료유 등 생필품 값이 상승, 서민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실정
  - 한 예로 발전기용 연료유의 경우 8월 중 25%가량 상승

### 3 이라크 당행 프로젝트 현황

- 당행은 '14. 10월말까지 대이라크국 관련 대출 17.1억불, 보증 42.4억불 등 총 59.5억불의 여신을 지원
  - 현재 對이라크국 관련 당행 여신잔액은 대출 7.9억불, 보증 41.3억불 등 총 49.2억불
    - 한화건설 비스마야 신도시건설공사 해외사업자금대출 96백만불 승인
    - 포스코건설 이라크 카밧 발전소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수출이행자금대출 96백만불 승인
    - 대우건설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 중앙처리시설 수출자금대출 제작금융 3,000억원 승인 및 이행성보증 승인(승인액 총 42억불) 등
  - ※ 모두 우리나라 기업 신용여신으로서 이라크국 앞 리스크 귀속되는 여신은 없음(당행은 '11년 12월 15일자 리스크관리 위원회를 통해 '14년말까지 이라크국에 대해 U\$10억불 규모의 특별한도를 설정)

### 4 이라크 프로젝트 시장의 시사점

- 이라크는 '14년기준 단일국가로는 한국 기업의 최대 프로젝트 시장으로 등극
  - 2011년 국가재건이 본격화된 이후로 석유생산 증가와 이에 따른 경제성장에 힘입어 2014년 한국 기업의 수주총액이 80억 달러(4월 기준)에 도달
  - 한화건설이 비스마야 신도시 개발(77억5000만 달러), 현대건설이 카르발라 정유공장(60억 달러)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한국 업체의 이라크 진출이 활발하였음

## 연도별 아국 건설기업 이라크 프로젝트 수주현황

(백만달러, 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4월	총 누계
금액	136	3,666	9,636	2,450	7,996	31,576
건수	6	8	12	7	12	164

자료원 : 해외건설협회

- 이 같은 실적에도 이번 사태는 이라크시장이 가진 **본원적 리스크(종파 민족 간의 갈등)**를 노출시킨 셈

  - 오바마 미국 행정부 등 국제사회가 IS 반군 관련 문제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만큼, 이번 이라크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는 석유자원이 풍부해 기본적으로 건설한 국제수지·재정 구조 및 풍부한 자금력을 확보한 시장

  - 이라크 중앙정부를 비롯, 이라크 일반 업계의 한국산 제품과 프로젝트의 품질에 대한 신뢰도는 대단히 높으며, 한국 기업의 이라크 내 진출을 적극 희망하고 있는 상황
- 이라크 사태로 인해 현재는 이라크 진출 및 사업이 어려운 실정이나 이라크 시장동향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다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프로젝트 추진 등을 목적으로 한국 업계가 이라크를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경호체제를 완비한 가운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붙임 : 최근 이라크 IS 사태 관련 주요 동향

(붙임)

최근 이라크 IS 사태 관련 주요 동향

< 11.7.(금) 21:00시 기준 주요 동향 >

(1) 시리아 정부군, **샤에르 가스전 탈환(11.6)**

- 시리아 정부군은 IS 에게 넘어갔던 시리아 중부 홈스주에 위치한 샤에르 가스전을 지난 11.6 탈환
  - \* IS는 시리아와 이라크의 가스전과 유전을 장악한 뒤 여기서 생산되는 가스 및 석유를 팔아 전투 자금을 충당해왔음

(2) 서방 청년 지하디스트 크루즈 이용해 IS **합류**

- 서방을 포함한 전 세계 청년들이 IS합류를 위해 유람선(cruise)를 이용, 시리아와 이라크로 향하기 시작
- IS 가담을 막기 위해 터키 등에서 입국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비교적 심사가 간단하고 느슨한 크루즈를 이용(최근 3개월)

(3) 미국 주도 연합군, **시리아 공습 확대**

- 미군 주도 동맹군, 최근 IS뿐 아니라 시리아의 알카에다 연계 반군인 알누스라전선과 이슬람 근본주의 반군인 '아흐라르알샴' 공습
- 미정부는 알누스라전선이 아닌 호라산그룹이 공습 목표였다고 밝힘
  - \* 호라산 그룹 : 알카에다 분파의 극단주의세력으로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출신 알카에다 베테랑들로 구성

(4) 10년간 미군 **600여명 이라크서 화학무기 노출**

- 지난 10월, 이라크에서 미군 17명이 사린, 겨자가스 등 화학무기 노출 사실 확인됨
- 이후 미국방장관의 지시로 조사결과 지난 10년간 600여명의 미군이 화학무기에 노출된 사실 드러남(당시 의료진이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음)

(5) **이라크 예산 위기 직면**

- 이라크 의회는 2014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다가 지난 11.5(수), 결국 관련 논의를 아예 중단기로 결정
- 2014년 합법적 예산이 없었던 이라크는 임기응변식으로 나라살림을 꾸려옴

- 한편 국방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해 석유부문, 신규채용 등에 대한 투자가 미뤄지고 있음
- KRG에 대한 예산 배분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 KRG는 원유 독자적 수출을 단행중

**(6) 이라크 외무부장관 “모든 석유부문은 바그다드가 컨트롤”**

- 11.5-11.7간 터키를 방문한 Ibrahim al-Jaafari 이라크 외무부장관은 터키 외무부 장관에게 “모든 석유부문은 바그다드(중앙정부)가 컨트롤”한다고 언급
- 기자회견에서 al-Jaafari 장관은 터키의 KRG 독자원유수출 지원과 관련하여 터키와의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중이라고 언급

**< 11.6.(목) 13시 기준 주요 동향 >**

**(1) 영국 이라크에 군사 파견 결정**

- 11.5(수), 마이클 펠런 영국 국방장관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기자회견 시, 이라크군을 훈련시킬 군사요원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힘
- 단 전투병 파병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

**(2) 뉴질랜드, 이라크군 훈련을 위한 군병력 파견 가능성 언급**

- 11.5, 존키 뉴질랜드 총리는 국가안보 주제 연설에서 IS에 대응하여 전투병이 아닌 이라크군 훈련을 위한 군 병력 파견이 가능하다고 언급

**(3) 난민들이 맞닥뜨린 가혹한 겨울**

- IS사태로 올해 1월부터 이라크에서 발생한 피란민은 190만명이며, 이 중 절반이 겨울 추위가 극심한 쿠르드 지역(도혹주 등)으로 이동
- 천막 또는 건물이라도 난방시설은 물론 유리창도 없는 곳이 대부분
- 이라크주재 유엔사무소(UNAMI)의 집계에 따르면 이 중 100만명이 월동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함
- 최근 구호단체들은 ‘winter’, ‘urgent’ 단어를 많이 사용한 호소문을 통해 국제사회에 간절히 지원 요청중

**(4) 11.4 아르슬란 하칸 육찰 주한 터키대사 기자간담회 서울 대사관에서 열림**

- 터키-시리아 국경인근에 비행금지구역(no-fly zone) 설정 필요성 언급
- 동 사태의 근본 원인은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며, IS뿐 아니라 아사드정권 퇴출에 힘을 써야한다고 강조

< 11.4.(화) 11:15시 기준 주요 동향 >

(1) 캐나다 공군, 이라크 내 첫 공습 작전 수행

- 캐나다 공군은 IS 점령지역에 4차례의 공습 작전을 벌여 불도저와 덤프트럭 등 IS의 주요 건설장비 파괴

(2) 이라크, 내년 봄 대규모 군대 창설 계획

- 이라크는 IS에 대한 대대적 역공을 위해 2만명 규모의 군대를 창설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옴
- 한편 2015년 말까지 북서부 IS점령지(모술 등), 주요도로, 시리아 국경지대를 탈환하는 것을 목표로 반IS군대 창설을 추진중이라고 전해짐

(3) 프랑스 외무장관, 시리아정부군에 의한 알레포 함락 위기 경고

- 알아사드 정권과 싸우는 자유시리아군의 보루인 시리아 제2 도시 알레포가 시리아 정부군에 포위돼 함락될 위기라고 전함
-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이슬람 수니파 무장 세력 IS 격퇴에 골몰하다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우는 시리아 반군을 궤멸 위기에 빠트렸다고 지적

(4) KRG 독자적 송유관 70만b/d로 용량 증대 작업중

- 현재 28만b/d에서 올해말 40만b/d까지 증대 예정
- \* 현재까지 Ceyhan항을 통해 총 19.2백만배럴 수출 및 총 4억불의 수익은 터키 Halkbank에 입금

(5) KRG총리, SOMO 아르빌 지사 설립 부인

- 최근 중앙정부-KRG대표간 합의에 따라 KRG의 독자적 원유수출 모니터링을 위해 아르빌에 SOMO(State Oil Marketing Organization) 지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보도됨
- 니체르반 바르자니 총리는 아르빌 내 SOMO지사 설립계획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



< 10.30.(목) 08시 기준 주요 동향 >

(1) 프랑스, 서방국 중 IS전사 최대 공급처

- 프랑스가 IS를 비롯한 테러단체에 동참하는 자국민이 급증해 고심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어제(10.29.) 보도
  - IS의 본거지인 시리아나 이라크의 지하디스트 활동에 참여한 프랑스 국민은 1천 명으로, 그 규모가 서방 국가들 중에서 가장 큼
  - 프랑스 공식집계에 따르면, 직접 전투에 나서는 프랑스인 지하디스트는 360명이며 이 중 36명이 사망했고 약 200명 가량이 귀국해 50명 이상이 수감
    - \* 2012년 3월, 프랑스 툴루즈에서 알카에다 연계조직에 몸담았던 프랑스인 모하메드 메라가 연쇄 총격으로 유대인 어린이를 포함한 7명을 살해한 뒤 자택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사살됨
    - \* 지난 5월에는 시리아 반군으로 활동했던 프랑스인 메흐디 네무슈가 벨기에 브뤼셀 유대박물관에서 총기를 난사해 4명이 숨짐
- 프랑스는 서방 국가들 중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으며 전체 6,600만 명의 국민 중 5~10%가 무슬림인 것으로 추정
  - 이들은 이민자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프랑스 정부가 이들을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끌어들이려는 통합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옴

(2) 호주 특수부대, 비자 문제로 이라크 입국 못해

- 미국 주도의 IS격퇴전에 참가하려고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된 호주 특수부대가 비자가 나오지 않아 이라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주둔군지위협정(SOFA)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한 달 넘게 UAE에 발이 묶여 있던 특수부대원 200여 명이 이번에는 비자 발급 절차 지연으로 시간을 허송하고 있음
  - 호주 정부 관계자는 "장애물은 적군이 아니라 이라크 정부의 끔찍한 비능률성"이라며 "비자가 발급되려면 1~2주를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이라크 정부가 호주 특수부대의 자국 주둔에 비협조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외국군의 자국 주둔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
    - \* 알 자파리 이라크 외무장관도 이라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외국군이 이라크에 주둔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뜻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음

(3) IS, 이라크 점령지서 40여명 집단 총살 만행

- IS는 어제(10.29.) 바그다드 서쪽 안바르 주(州) 히트 마을에서 이라크 정부와 연계된 수니파 민병대원과 군인·경찰등 46명을 세워놓고 총살
  - 안바르 주 히트 마을은 수니파 거주지역으로 이달 초 IS가 이라크 군·경과 전투 끝에 점령
- 한편 이라크군은 이날 헬리콥터를 동원해 바그다드 북부 살라후딘 주 Baiji 시(市) 부근 2km까지 접근
  - Baiji 지역은 이라크에서 가장 큰 정유시설이 있는 곳으로,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음

< 10.29.(수) 08시 기준 주요 동향 >

(1) 페쉬메르가 152명, 시리아 코바니 진격 개시

-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KRG)는 페쉬메르가 대원 152명이 IS와 전투를 위해 어제(10.28.) 시리아 코바니로 출발했다고 밝힘
  - 이들은 군용 항공기와 차량에 중화기 등의 무기를 적재하고 이라크 북부 기지를 출발 시리아로 향했으며 80명은 육로로 나머지 72명은 비행기로 각각 이동해 오늘(10.29.) 새벽 터키국경에 도착한 것으로 보도됨
  - 한편 다부토글루 터키 총리는 “터키는 시리아에 지상군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코바니를 지키는 것은 페쉬메르가와 온건 시리아 반군이 될 것”이라고 밝힘

(2) 국제사회 시리아 난민 지원 확대 움직임

- 전 세계 40개국 정부, 유엔난민기구(UNHCR) 및 50개 이상의 비정부기구(NGO) 책임자들은 어제(10.28.) 독일 베를린에 모여 시리아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자금 확대와 구호강화 대책을 논의
  - 유엔난민기구(UNHCR)는 시리아 난민들의 생존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는 37억5천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힘
  - 이에 유럽연합(EU)의 중심국이자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내년부터 3년에 걸쳐 모두 5억 유로(6,664억원)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고 EU에도 지원 자금을 늘리라고 촉구
  - 미국 정부도 이번 회의에 맞춰 1억달러 규모의 지원금 확대계획을 공개
- 현재 레바논, 터키, 요르단, 이라크 등지로 유입된 시리아 난민은 이미 300만 명을 넘어섰으며 레바논이 약113만 명, 터키는 106만 명, 요르단 62만 명, 이

라크 22만 명, 이집트 14만 명 순입

- 레바논은 특히 시리아 난민 유입에 따라 자국 국민의 전반적인 일상생활과 경제능력까지 저하되는 위기에 빠지자 난민유입 차단을 선언
- 터키는 시리아 난민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사용한 비용이 40억 달러에 이르지만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은 액수는 2,50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토로

< 10.28.(화) 15시 기준 주요 동향 >

(1) 페쉬메르가, 코바니 파병 지체

- KRG 군사조직 페쉬메르가의 시리아 코바니 파병이 터키측의 미온적 태도로 지체되고 있음
- KRG는 터키 정부가 지난 10.20.(월) 페쉬메르가의 국경 통과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자 이튿날인 10.21.(화) 코바니 파병안을 가결하는 등 신속하게 움직여 왔음
- 현지언론에선 페쉬메르가의 중화기 부대 150명이 IS와의 전투를 지원하기 위해 10.26.(일)께 코바니로 향한다는 보도도 나왔으나 어제(10.27.)까지도 병력이 출발하지 못함
- KRG는 "아직 터키 측으로부터 (국경통과에 대한) 대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함

(2) IS, 지대공미사일 발사능력 갖춰... 미군 공습작전 최대위협

- IS의 지대공 미사일 발사 능력이 발전하면서 국제연합전선이 IS 격퇴를 위해 실시 중인 공습 작전의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3일 이라크 Baiji 인근에서 IS가 열추적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해 이라크군의 MI-35 공격 헬기를 격추, 승무원 2명이 숨졌다고 밝힘
- 며칠 후 IS는 공중으로 발사한 중국제 FN-6 미사일에 맞아 타격을 입은 목표물 잔해가 도로에 떨어지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공개
- IS는 올해 이라크군 헬기 여러 대를 격추했다며 최근 Baiji 인근을 정찰하던 벨 407 헬기를 공격하기도 함
- 따라서 미국의 공습 강화로 주춤했던 IS가 대공무기를 이용해 전세를 역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IS는 최근 아파치 공격용 헬기를 격추할 수 있는 휴대용 견착식 미사일 발사 방법이 담긴 온라인 안내서를 발행, 안팎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음

- 미군은 바그다드 국제공항에 여섯대 가량의 아파치 헬기를 배치해 뒀으나 지대공 화기에 취약하다는 점 등 때문에 사용하지 않다가 이달 들어 처음으로 군사 작전에 투입
- 게다가 IS와 힘겨운 전투를 벌이는 이라크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아파치 헬기를 본국에 주문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IS의 미사일 공포가 확산되고 있음

### (3) KRG, 원유 수출대금으로 예산부족 문제 해결 시도

- KRG대변인은 지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KRG의 석유정책은 성공적이며 올 연말까지 바그다드로부터 예산분배를 받지 못 할 경우 자체 원유 수출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힘
- 그는 올 연말까지 KRG의 원유 수출물량이 40만~45만 b/d에 이를 것이며(현재 약 28만 b/d) 이를 통해 KRG의 자금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고 언급
- 또한 향후 10일 내로 바르자니 대통령 특사단이 바그다드를 방문해 알 아바디 총리와 회담을 갖고 KRG 몫 예산분배 문제의 해결을 시도할 것이어서 조만간 바그다드의 최종입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KRG는 예산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약 70억불의 자금 역시 외부에서 조달했다고 밝힘
  - \* 참고로 KRG는 얼마 전 동아시아의 특정 국가로부터 자금조달을 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는 지역언론 보도가 있었으며 현재 자금조달 관련 법안이 심의 중인 것으로 보도됨

### (4) IS 점령지, '선전'과는 판판...경제 붕괴로 '신음'

- 영국 가디언은 어제(10.27.)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 등 IS가 장악한 지역의 경제가 파괴되고 주민들이 식수난과 식량부족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보도
  - 보도에 따르면 약 5개월 전에 함락된 모술의 공공기관 대부분은 운영되지 않고 있고 공공서비스도 중단된 상태
  - 비즈니스 활동과 정부가 발주한 공사들은 모두 정지됐고, 수천 명이 현재 실직된 상태로 수입이 없음
  - 취사도구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등유의 가격은 몇 개월만에 배럴당 51달러에서 160달러까지 치솟음
  - 쿠르드군이 IS의 핵심 보급로인 라비아(Rabia) 지역을 탈환하면서 모술의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IS 장악 지역에서는 아이들의 교육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2개월 전 모술을 빠져나와 술레마니아에 살고 있는 한 이라크인은 "(모술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지고 있다"며 "그들은 누구든지 IS를 제거 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히고 "그들은 심지어 과거 증오했던 이라크 군대보다도 IS를 더 혐오한다"고 덧붙임

< 10.28.(화) 08시 기준 주요 동향 >

(1) 이라크 탈환지서 연이은 폭탄테러... 최소 42명 사망

- 어제(10.27.) 바그다드와 인근 주르프 알사크르에서 연이어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42명이 사망
  - 주르프 알사크르에서는 이날 폭발물을 가득 실은 한 군용 지프차량이 시아파 민병대를 향해 돌진하면서 27명이 사망하고 60여명이 부상을 입음
    - \* 이라크 정부군과 시아파 민병대는 지난 주말 IS와 격렬한 전투를 벌인 끝에 이곳 대부분을 탈환했었음
  - 또 이날 바그다드 중심부에 위치한 상업지구 카라다에서도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15명이 사망
- 이라크 정부는 내달 3일 아슈라 성일을 앞두고 시아파 신도들이 바그다드 내 사원들로 몰려들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
  - 아슈라 성일은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의 손자 이맘 후세인을 기념하는 날로 자칫 인파가 몰린 곳에 폭탄테러가 발생한다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음

(2) 뉴욕타임스(NYT), IS 인질 신원 첫 분석

-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2년간 IS에 납치된 서방국가 인질 23명의 신원을 최초로 전원 분석해 어제(10.27.) 보도
  - NYT 기자 6명이 수개월간 미국·유럽·중동 현지를 찾아 풀려난 인질과 그들의 가족, 몸값 협상에 관여했던 각국 인사와 前IS 조직원 등 수백 명을 취재
  - 인질 23명 중 절반인 11명이 프리랜서 기자로 모두 현지 취재를 돕던 가이드에게 속아 IS에 팔려갔으며 구호단체 직원으로 현지 봉사활동을 하다 잡힌 이가 10명이었음
  - 국적은 대부분 서방 선진국으로 미국(4명), 프랑스(4명), 영국(3명), 스페인(3명), 덴마크(2명) 순이었음
  - 암암리에 몸값을 지불한 프랑스 등 유럽 국민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 풀려났으나 몸값을 안 낸 미국인은 4명 중 2명, 영국인 3명 중 2명이 살해당함
- IS의 인질 선택은 철저히 '상품성'이었으며 풀어주는 대가로 몸값을 챙기거나, 공개 살해 동영상으로 국제사회에 충격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음
- 러시아 엔지니어는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 비공개 살해 후 영상을 인질들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며 "너희들 정부가 몸값을 안 내면 이렇게 된다"고 협박하는 데 활용
- 인질 구출엔 1인당 평균 200만유로(약 26억원) 이상의 몸값이 건네졌으며 IS는 스페인 정부가 자국 인질들 몸값으로 현금을 건넸을 때 "뺨뺨한 새 지폐로 보내는 예의도 없느냐"며 불평했음
- 인질들은 20㎡ 남짓의 어두운 공간에 갇혀 하루에 찻잔 한 잔 분량의 식량만 배급받았으며 IS는 인질들을 수시로 구타하고 물고문도 자행

### (3) IS 격퇴전에 요르단 특수부대 4천명 투입 주장 제기

- 요르단이 미국과의 밀약을 통해 4천명 규모의 여단급 특수부대를 비밀리에 이라크에 투입, IS격퇴전에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 요르단 특수부대원들은 이라크 정부군과 Peshmerga의 복장에 견장 등을 부착하고 바그다드 인근 전선과 북부 쿠르드족 거주지 등에 배치, 최근 두 지역에서 IS에 대해 거둔 승리에 이들이 한몫을 했던 것으로 보임
- 미 지상군 파견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요르단군을 이라크에 파견해 미국의 근접항공지원 아래 IS에 맞선 전투에 투입한다는 것이 소문의 골자
  - 압둘라 요르단 국왕은 IS의 잦은 국경 침범이 요르단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를 묵과할 수 없다며 강력한 응징 의지를 밝히기도 함
  - 요르단은 3개 여단 1만4천여 명의 특수전 병력을 운용 중이며, 미국의 지원 덕택에 아랍권에서 가장 현대적인 특수전 병력 보유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옴

### (4) 살아나던 이라크경제 IS사태에 '직격탄'

- 최근 수년간 되살아나는 흐름이었던 이라크 경제가 IS 사태로 추락할 위기에 직면했다는 전망이 나옴
  - 국제통화기금(IMF)은 어제(10.27.) 낸 지역보고서에서 이라크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7%로 예측, 이는 6개월 전 전망치 5.9%에서 무려 8.6%포인트나 후퇴한 것
  - 올해 4월까지만 해도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원유수출국 평균 전망치

(3.4%)보다 웃돌면서 고성장이 기대됐던 이라크 경제가 단 6개월만에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한 셈

- IMF는 이라크의 주 수입원인 원유생산량도 지난해 하루 298만 배럴에서 올해 285만 배럴로 줄어든다고 내다봄

- 이라크는 최근 수년간 고유가에 힘입어 2009년 5.8%, 2010년 5.5%, 2011년 10.2%, 2012년 10.3%에 이어 지난해엔 4.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회생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았음

- IS가 북쪽 키르쿠크 등 유전지대의 수출 통로인 수송관을 공격하면서 일일 원유 수출량은 6월 243만 배럴로 줄었고 지난달 254만 배럴로 회복세였으나 저유가가 겹쳐 수출액까지 감소

< 10.27.(월) 17시 기준 주요 동향 >

#### (1) 서방의 공습으로 IS 원유 생산량 대폭 감소

○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제에너지기구)는 최근 서방의 공습으로 IS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생산 중인 원유의 규모가 당초 7만 b/d에서 2만 b/d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힘

- 앞서 IEA는 IS가 시리아와 이라크 북부에서 장악하고 있는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를 밀수출해 일 평균 약 \$100만~\$300만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음

- 그러나 현재 생산량 2만 b/d와 원유 판매가격 \$40/d를 고려할 때 현재 밀수출을 통해 거두는 수익은 \$80만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

○ IEA는 공습 외에도 쿠르드자치정부(KRG)와 터키의 적극적인 원유 밀수 단속도 IS 수출을 감소시키는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

- IEA는 이라크 내에서 밀수되는 원유가 한 때 3만 b/d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1만 b/d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힘

○ IS는 금번 공습으로 이라크 Ain Zalah, Batma 유전에서 퇴각했으며, Qayara, Najma, Balad, Himreen 유전에서 현재 약 1만 b/d의 원유를 생산 중

- 시리아의 경우 IS가 여전히 시리아 최대 유전인 Omar 유전이 포함된 Deir Az-Zour 지역을 장악하고 있으나,공습으로 인해 실질적인 생산량은 1만 b/d 이하인 것으로 알려짐

#### (2) IS, 이라크서 지뢰 수천발 매설 후 퇴각

○ IS가 주르프 알사크르 지역에서 이라크군과의 전투에서 패하면서 지뢰 3천여 발을 매설하고 퇴각했다는 주장이 제기

- 주르프 알사카르 지역은 수도 바그다드의 남쪽으로 통하는 요충지로 이라크군이 국제동맹군의 폭격지원을 받아 한 달여간 전투 끝에 지난 금요일(10.24.) 탈환

- 바빌 주의회 의장은 "지뢰를 모두 제거하려면 1~2개월은 걸릴 것"이라며 "IS가 떠났지만 피난갔던 주민들이 지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한다"고 밝힘

- 주르프 알사카르에선 금일(10.27.) 차량폭탄 테러가 일어나 최소 27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외신들이 보도

### (3) 페쉬메르가, 쿠르드 코바니에 화력 지원 의사

○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KRG)가 IS의 공격을 받고 있는 시리아 쿠르드 코바니(아인 알아랍)에 대한 포격 지원 의사를 밝힘

- KRG 대변인은 어제(10.26.) "우선적으로 포를 비롯해 무기를 통한 공격 지원이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지상군 투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

- 코바니를 방어하고 있는 시리아 쿠르드군은 지난달 본격화된 IS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는 중화기 지원이 불가피 하다며 KRG는 물론 인근 국가들에게도 지원을 호소했었음

- 마수드 바르자니 KRG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터키, 시리아 쿠르드와 최종 일정이 조율되는대로 155명의 페쉬메르가 대원이 조만간 코바니로 향할 것"이라며 "페쉬메르가가 장착할 무기는 준중형화기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힘

## < 10.27.(월) 07시 기준 주요 동향 >

### (1) KRG, 쿠르드 유입 난민 중 IS 가족들도 섞여 있다고 언급

○ 스페인을 방문 중인 KRG 대표는 현재 쿠르드지역에 유입된 난민들 중 IS의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어 치안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힘

- IS는 KRG와의 전투 중에도 지속적으로 그들의 가족들을 KRG 내 난민 캠프로 보내고 있으며 일부 난민캠프에서는 무기가 발견되기도 함

- 쿠르드 지역에는 현재 26개 난민캠프에 약 180만명(KRG 인구의 약 17%)의 난민이 유입되었고 앞으로 약 50만명이 더 유입될 것으로 예상

- 난민 문제는 KRG가 점점 더 감당하기 힘들어 지고 있어 UN 등 국제기구의 지원이 절실하며 난민들이 특히 필요로 하는 것은 담요와 위생시설 및 의약품이라고 밝힘



(2) 코바니 전투, 40일간 815명 사망

○ 시리아 북부 코바니에서 지난 40일 동안 적어도 815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져 하루 평균 20명 이상이 사망

- 확인된 사망자 중 481명은 IS 전투원으로 잠복 공격이나 차를 이용한 자살 폭탄 테러 등으로 사망했고 쿠르드족 민병대 측 사망자가 313명, 민간인이 21명임

- 그러나 사망자 수가 공표되지 않았고 전투 지역에 가까이 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사망자 수는 약 2배일 가능성도 있음

\* 지난 9.16. 이후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 도시 코바니에서 IS의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 이에 저항하는 쿠르드족 부대 간의 격전이 40일간 계속되고 있으며 주민 약 20만명 대부분은 이미 국경을 넘어 터키로 피난

(3) 이라크, 요르단에 IS 격퇴 추가 지원 요청

○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어제(10.26) 요르단 수도 암만을 방문해 압둘라 2세 국왕에게 IS 격퇴를 위한 전폭적 지원을 요청

- 이라크 내 IS와의 최대 교전지역인 안바르 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요르단은 현재 미군 주도의 IS 공습 작전에 참여해 이라크를 지원하고 있음

- 아바디 총리의 이번 요르단 방문은 이란 방문 후에 이뤄진 것으로 아바디 총리는 이란에서도 IS 격퇴를 위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짐

< 10.26.(일) 07시 기준 주요 동향 >

(1) IS, 이라크 주요 전략 지역서 잇따라 '패퇴'

○ 이라크 정부군과 쿠르드 자치정부군 페쉬메르가가 IS에 빼앗긴 주요 지역을 잇따라 되찾음

- 이라크군은 수도 바그다드 부근 주요 전장인 주르프 알사크르 지역 대부분을 IS로부터 되찾음

\* 이번 승리는 전략적 주요지에서 최근 수개월간 전개된 전투 중 가장 큰 수확이라는 평가를 받음

\* 알사크르를 완전히 회복할 경우 IS가 바그다드 및 남부 시아파 지역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고 서부 거점인 안바르주와의 연계도 차단할 수 있음

- 쿠르드 자치정부 군조직 페쉬메르가도 IS로부터 주마르(Zummar) 인근 여러 마을(Kirkafir, Girbir)을 탈환

\* 주마르(Zummar)는 지난 8월 IS로 넘어간 모술 북서부 도시로, 페쉬메

르가가 주마르를 사수하면 IS에 포위돼 학살 위협에 놓인 야지디족의 거주지 신자르 지역 진입도 수월해짐

(2) 바그다드 인근 자살 폭탄테러로 8명 사망, 17명 부상

○ 어제(10.25.)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진 타지에서 시아파 민병대 대상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8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입음

(3) 경호업체(GW)의 이라크 각 지역 치안상황 비교분석표

○ KRG지역(KR-I; Kurdistan Region ? Iraq)은 이라크 내 타 지역 대비 제일 안전한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음

Reviewed and re-graded accordingly as of October 25, 2014

Región	Overall Threat	Civil Unrest	Geo-Political	Terrorism	Crime	Kidnapping
Baghdad	High	Moderate-High	Moderate-High	High	High	High
West	Extreme	Moderate-High	High	Extreme	High-Extreme	High
South Central	High-Extreme	Moderate	High	High-Extreme	High	High
South	Moderate-High	Moderate-High	Moderate-High	Moderate	Moderate-High	Moderate
North Central	High-Extreme	Moderate	High	High-Extreme	High	High
North	Extreme	Moderate-High	High	Extreme	High-Extreme	High
KR-I	Low	Low	Low-Moderate	Low-Moderate	Low	Low

< 10.25.(토) 17시 기준 주요 동향 >

(1) 터키-시리아 쿠르드 정당(PYD), '코바니 지원' 놓고 갈등

○ IS의 공격으로 함락 위기를 맞았던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 도시 코바니(아인알 아랍)를 놓고 터키와 시리아 내 쿠르드 정치세력 '민주동맹당'(PYD)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

- 당초 IS의 공격 초기 터키가 코바니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이 갈등의 원인이었으나 최근에는 터키가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KRG)와 시리아 반군의 코바니 지원을 중재한 것이 빌미가 됨

\* 터키는 지난 20일 이라크 페쉬메르가가 터키를 경유해 코바니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24일에는 시리아 온건 반군인 자유시리아군(FSA)이 코바니에서 IS와 싸우는 것을 돕겠다고 밝힘

- 그러나 코바니를 포함한 시리아 북부에 자치정부 수립을 선포한 쿠르드 정치세력 '민주동맹당'(PYD)은 터키의 지원 중재는 자신들의 자치정부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반발

- 반면 터키는 '민주동맹당'(PYD)가 자국의 쿠르드 반군인 '쿠르드노동자당'(PKK)과 연계된 테러조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PYD가 코바니의 운명보다 통치권에만 관심이 있다고 비난

○ 40일째 접어든 IS와 YPG간 코바니 격전은 최근 1주일 이상 전선에 변화가 없어 교착상태를 보여 함락 위기는 넘긴 것으로 미군은 진단

- KRG 전문매체인 루다우는 페쉬메르가 대원 150명이 중화기로 무장하고 내일(10.26.) 터키 국경을 넘어 코바니로 갈 것이라고 보도

- 따라서 IS가 병력을 대거 보강하지 않고 터키의 발표대로 페쉬메르가와 시리아 온건반군 자유시리아군(FSA)가 투입된다면 코바니 외곽까지 탈환할 가능성도 있음

- 코바니가 위기를 모면하자 최근에는 IS 격퇴 이후의 코바니를 놓고 터키와 PYD 간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 'IS 격퇴작전'서 첫 미군 사망자 발생

○ 금일(10.25.) 미국 국방부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지난 23일 해병대원인 손 닐(19) 일병이 사망했다고 발표

- 미 국방부는 닐 일병이 "전투상황이 아닌 사건"으로 숨졌다고 발표하면서 정확한 사망 원인이나 사망 당시의 상황은 조사 중이라고 밝힘

- 이달 초 아라비아만에서는 미국 해병대원 1명이 항공기에서 추락해 실종되는 일이 있었지만, 실종 해병대원은 아직 사망자로 간주되지 않고 있음

- 2003년 미국이 이라크전쟁을 개시한 이후 지금까지 4천여명의 미군이 이라크에서 사망한 바 있음

## < 10.24.(금) 17시 기준 주요 동향 >

### (1) IS 격퇴작전에 지금까지 6천600회 출격, 폭탄 1천700개 투하

○ 미국과 동맹국들이 IS 격퇴를 위한 공습을 시작한 이후 약 6천600회의 출격을 통해 1천700여 개의 폭탄을 투하했다고 미군이 밝힘

- 미군 중부사령부는 시리아로의 IS 공습 확대 한 달째인 어제(10.23.)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힘

- 지난 8월 8일 이라크 내 IS에 대한 공습작전(작전명 내재된 결단)을 개시한 후 이뤄진 출격 횟수 중 632차례는 공습을 위한 것이었고 나머지는 공중급유와 정찰 등의 임무를 위한 출격이었음

- 632회의 공습 가운데 절반을 약간 넘는 346회는 이라크에서 이뤄졌으며 시리아에 대한 공습은 286차례가 단행

- 미군에 의한 공습에는 무인기 리퍼와 F-15, F-16, F/A-18, F-22 전투기와 B-1B 폭격기, 해리어 전투기, AC-130공격기가 동원됐으며, AH-64 아파치 공격용 헬기도 지난 4일과 5일 최소 2차례 이라크 공습에 참여

- 미국은 그동안 폭넓은 동맹국들이 IS 격퇴 작전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해왔으나 지금까지 단행된 공습 대다수는 미군에 의한 것이었고 아랍 4개국을 포함해 동맹국들이 단행한 공습은 79회였던 것으로 나타남

- 이라크 내 IS에 대한 공습에는 호주와 벨기에, 영국, 네덜란드가 참여했으며 시리아 내 IS 공습에는 바레인과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의 전투기가 동참

## (2) 터키 대통령, “시리아 온건반군 1천300명 코바니 지원”

○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금일(10.24.) 시리아 온건 반군인 자유시리아군도 IS에 맞서 싸우는 시리아 쿠르드 민병대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그는 시리아 쿠르드 정치세력인 민주동맹당(PYD)이 자유시리아군 대원 1천300명이 코바니에 합류하는 것을 받아들였으며 이동 경로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

- 친정부 일간지인 사바흐도 이날 자유시리아군 관계자를 인용해 코바니에 1천500명을 보내기로 했으며 부대원들이 36시간 안에 코바니로 갈 수 있다고 밝힘

-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KRG) 군조직인 페쉬메르가의 코바니 지원 인력이 200명에서150명으로 줄었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힘

\* 그는 "오바마와 통화에서 우리는 자유시리아군이 코바니 파병 우선이고 페쉬메르가는 두번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말함

## (3) IS, 원유 밀매해 하루 10억원 벌어들여

○ 미국이 IS의 자금창구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과 원유를 암거래하는 대상에 대해 제재를 할 방침이라고 경고

- 코언 미 재무부 차관은 IS가 암시장에서 원유를 팔아 하루 100만 달러(10억5600만 원)를 벌어들인다고 밝힘

- 또 “IS는 터키를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온 중개인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원유를 판매해왔다”며 이라크 쿠르드족 밀수업자들과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

드 정부 역시 IS가 생산하는 원유를 구매해왔다고 지적

- 그는 "IS와 원유를 거래하는 중재인, 무역업자, 정유 및 수송회사들은 우리가 그들의 정체를 밝혀내는 작업에 힘을 쏟고 있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이들이 미국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어디서든 거래 은행을 찾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며 제재 의지를 내비침

#### (4) UN, 이라크 인도적 지원 위해 22억 달러 모금

○ UN은 이라크 사태로 피해를 겪은 주민이나 이재민을 돕기 위해 22억 달러의 인도적 구호 자금을 모금할 계획임

- 이 같은 방침은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바그다드 사무소에서 결정됐으며 그 대상은 이라크인 520만 명이 될 것이라고 밝힘

- OCHA는 이라크에서 2014년 1월 이후 18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170만 명은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분쟁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

- OCHA는 또 280만 명의 주민은 식량 보급이 필요하며 약 80만 명은 대피소에 들어가지 못해 떠돌고 있고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들이 대피소에 들어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

#### < 10.24.(금) 08시 기준 주요 동향 >

##### (1) 미 싱크탱크, "IS,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까지 위협"

○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쟁연구소(ISW)는 어제(10.23.) 발간한 '이라크 상황' 일일 보고서에서 IS의 바그다드에 대한 위협을 경고

- 이라크의 전황에 대한 정보를 매일 수집해 분석하는 ISW가 바그다드가 위협 받는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

○ ISW는 IS가 바그다드를 장악하기 위해 VBIED와 IED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분석

- IS는 '차량폭탄 폭발물(VBIED; Vehicle Borne Improvised Explosive Device)'을 동원한 테러와 공격 대상지역의 방어망을 약화할 때 쓰는 '도로 매설 급조폭발물(IED; Improvised Explosive Device)'을 사용한 특유의 공격으로 바그다드를 공격 중

- IS는 주이라크 미국대사관이 있는 바그다드 내 안전구역인 '그린존'을 박

격포로 공격하고 바그다드 곳곳에 자살폭탄 테러 차량을 보내는 능력을 갖추

- 이라크 민간인 사상자를 집계하는 'Iraq Body Countdown'에 따르면 21~22일 이틀간만 해도 바그다드 시내 곳곳에서 일어난 VBIED와 IED 테러로 74명이 숨짐

## (2) 이라크군 "IS, 염소가스(화학무기) 사용" 공식확인

○ 이라크 국방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지난 달15일 IS가 바그다드 북부 돌루이야 마을 공격에서 화학무기의 일종인염소가스 무기를 사용했다고 밝힘

- 당시 이라크 경찰 11명은 어지럼증과 구토, 호흡 곤란을 호소해 병원에 실려 왔으며 검사 결과 염소가스 중독 진단을 받음

- 이라크 국방부는 IS가 염소가스를 얻을 수 있는 정수처리장에서 "원시적이고 비효과적인 방법"으로 가스를 얻었다고 밝힘

- IS가 염소가스로 공격한 것으로 추정된 사건은 앞서 두차례 더 있었지만, 이라크 정부의 이같은 공식 확인은 이번이 처음

- 1차대전 당시 독일은 벨기에에서 160톤의 염소가스를 살포해 프랑스 등 연합군 수천명을 살해했고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이라크군 역시 쿠르드족과 반군 학살에 염소가스를 사용

- 한편 IS 점령지에는 대규모 화학무기 제조시설이 있어 IS가 앞으로 더많은 화학무기를 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3) 코바니 전투, 3,000만 쿠르드 민족주의에 불붙여(FT 기사)

○ 시리아 코바니 전투가 3,000만 쿠르드족의 단결과 민족주의 부활의 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

- 3,000만 쿠르드족은 터키, 이라크, 시리아, 이란에 흩어져 수십 년 간 자치권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각 세력은 서로 합심하기는 커녕 정치적 라이벌로 여겨 왔음

- 그러나 이번 코바니 전투는 쿠르드 민족주의가 부활하고, 중동 4개국에 흩어져 있는 쿠르드족이 단결해 힘을 합쳐 자치권을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

- 이라크 쿠르드족은 코바니에서 IS와 전투를 벌이고 있는 시리아 쿠르드족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고 있으며,예전엔 한 자리에 모이지도 못했던 시리아·이라크 쿠르드 두 세력이 서로 만나 대화를 나누는 상황으로 진전

- FT는 시리아 민주동맹당(PYD) 지도자 살리흐 무슬림과 라이벌인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KRG) 수반인 마수드 마르자니가 권력투쟁을 한쪽으로 미루고 동맹을 맺을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주고 있다고 평가

< 10.23.(목) 11시 기준 주요 동향 >

(1) 캐나다 국회의사당서 총격, IS 세계 테러공포 현실화

- 어제(10.22.) 이슬람 개종자이자 알제리계 캐나다인인 마이클 제하프 비보(32)가 캐나다 수도 오타와의 중심부 국립 전쟁기념관에서 보초를 서던 군인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후 차를 빼앗아 타고 건너편의 국회의사당으로 난입해 총기를 난사

- 당시 의사당 안에서는 스티브 하퍼 총리가 보수당 의원들과 만나던 중이었고 하퍼 총리와 의원들은 즉각 안전한 곳으로대피

- 비보는 의사당 내에서 경비와 총격전끝에 사살됐고 그가 숨진 곳은 하퍼 총리가 있던 곳에서 불과 20m 떨어진 장소로 알려짐

- IS의 선전 매체들은 이날 두건으로 입을 가린 채 총기를 들고 서있는 남성의 사진을 공개하며 비보라고 밝혀 자신들의 전사임을 밝힘

- 이날 테러에 앞서 이틀전인 10.20(월) 퀘벡에서도 군인을 상대로 한 이슬람계 청년의 공격이 발생

- 이슬람 개종자인 마르탱 쿠튀르 룰로(25)는 자신의 차로 2명의 군인을 향해 돌진해 그 중 1명은 결국 사망, 현장서 달아나던 룰로는 차량이 전복된후 결국 사살됨

- 이 사건 후 캐나다 당국은 10.21.(화) 국가 테러경보 수위를 한 단계 격상했으나 이번 오타와 테러는 캐나다가 테러 경보를 상향한지 하룻만에 터짐

- IS가 자신들을 상대로 공습에 나선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보복을 경고한 가운데 미국과 함께 공습에 나선 캐나다가 첫 해외 표적이 된 것으로 보이며 IS에 의한 전세계 테러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

- 캐나다 의회는 이달 초 이라크, 시리아에서 IS 격퇴작전을 벌이고 있는 미군 주도의 국제연합에 전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승인하고 10.21(화) CF-18 전투기와 CP-140 정찰기를 이라크로 파견했었음

- IS는 지난달 미군 주도의 격퇴작전에 더 많은 나라가 동참 의지를 보이자 전 세계 추종자들에게 "불신자(disbeliever) 미국인이나 유럽인, 특히 악질적이고 더러운 프랑스인과 호주, 캐나다인 등 IS를 겨냥한 연합체에 동참한 국가의 시민들을 죽일 수만 있다면, 알라께 의지해 방법과 상관없이 죽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공개

- 캐나다와 미국, 영국 등 IS와의 전쟁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서방 국가들은 IS에 가담한 외국인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고국으로 돌아가 테러를 자행하거나,

IS에 동조하는 외로운 늑대(lone wolf·자생 테러리스트)들이 자국 내에서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을 우려해 옴

(2) 이라크 쿠르드 병력, 곧 시리아 코바니에 투입

○ KRG는 페쉬메르가 병력 120~150명이 며칠 내로 중화기를 갖추고 코바니 전투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힘

- 페쉬메르가 병력과 중화기는 터키를 거쳐 코바니로 이동하게 되며 야포와 기관총 등 중화기는 페쉬메르가가 통제할 예정

- 마수드 바르자니 KRG대통령은 그저께(10.21.) 코바니 지역을 통제하는 시리아 쿠르드 민병대(YPG)와 협상 끝에 페쉬메르가의 파병에 합의했고 KRG 의회는 파병을 승인

- 이에 앞서 Dohuk에서 일주일 동안 열린 지역별 쿠르드족 정파 회동에서 시리아 쿠르드 대표는 합동군사지휘부를 구성하고 시리아에 쿠르드족을 대표하는 새 정치단체를 결성하기로 합의

(3) IS, 쿠르드족과의 전쟁서 화학무기 사용

○ IS가 쿠르드족과의 격전지인 시리아 국경지대 코바니에서 **화학**무기까지 사용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음

- 어제(10.22.) 시리아 내 쿠르드 정치세력인 민주동맹당(PYD)의 **아이샤** 압둘라 공동의장은 “IS의 **화학가스** 공격으로 많은 주민이 의식을 잃고 숨을 겨우 쉬고 있다”라며 “폭음이 들리지 않은 탓에 이 화학가스가 어디서 발사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힘

- 한편 화학무기 공격으로 화상을 입은 피해자의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피해자는 **호흡곤란**과 **피부**에 물집이 생겼으며, **시력**을 잃을 위기에 처함

- 이번 공격에 사용된 화학무기는 **염소** 가스나 백린탄으로 의심되며 코바니에서 화학무기에 공격당한 피해자들이 정밀 **분석**을 위해 **터키**로 후송된 것으로 보도됨

- **니산** 아흐메드 KRG **보건**장관도 최소 3명의 쿠르드 병사가 IS의 화학무기 공격으로 숨졌다고 밝힘

(4) 미국 주도 '시리아 IS 공습' 한달간 553명 사망

○ 미국 주도의 국제동맹군이 IS를 겨냥한 공습을 시리아로 확대한 지 1개월 만에 55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

-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 현지 활동가들의 보고를 토대로 공습이 시작된 지난 9.23일부터 10.22. 자정까지 한달간 사망자를 집계



- 사망자들은 IS 조직원 464명과 알카에다 연계 반군인 알누스라전선 대원 57명, 민간인 32명이며 SOHR는 IS가 피해와 관련해 엄격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고 활동가들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IS 조직원 사망자는 464명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밝힘

- 아울러 미국은 알카에다 분파인 호라산 그룹이 미국에서 테러를 기도해 공습했다고 밝혔으나 SOHR는 알레포와 이дли브 등지의 알누스라전선이 공격을 받았다고 밝힘

### < 10.22.(수) 16시 기준 주요 동향 >

#### (1) 난민 유입에 따른 KRG 내 치안위협 증가

- KRG는 최근 성명을 내고 KRG 내 유입되고 있는 난민 증가로 특히 도시 내에서 줌도둑, 매춘, 구걸, 절도 등 반사회적 행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IS가 자신들이 장악한 이라크 북서부 지역 출신 난민들 틈에 섞여 KRG 영토로 잠입 후 시내에서 폭탄테러 등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

#### (2) 쿠르드자치정부, 코바니에 중화기·교관 지원 결정

- KRG군사조직 페쉬메르가가 터키 정부의 국경개방 조치 덕분에 시리아 북쪽 코바니에 중화기와 교관을 우선 지원키로 결정
  - KRG 의회는 어제(10.21.) IS와 전투 중인 코바니의 쿠르드족 민병대 인민수비대(YPG)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군사조직 페쉬메르가의 파병을 가결
  - KRG 한 관리는 "YPG 대원들에게 미군이 투하한 중화기의 사용법을 가르치는 교관을 제한된 규모로 조만간 파병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YPG는 군대보다는 무기 지원을 선호해 다음 주께 대전차무기와 같은 중화기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힘

#### (3) 美, 공중투하 실수... 공수무기 IS 수중에

- 시리아 북부에서 IS와 교전을 벌이고 있는 시리아 쿠르드족 민병대(YPG) 지원을 위해 공중투하된 무기 일부가 IS 수중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됨
  - 워싱턴포스트(WP)는 어제(10.21.) IS가 트위터 등을 통해 자신들이 확보한 미 지원 보급품 상자가 담긴 동영상 공개했다고 보도

\* 동영상에는 복면을 한 IS 전투원이 수류탄이 가득찬 상자를 열어보이는 장면이 담겨 있음

\* WP는 “공중투하는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지난 8월 IS의 습격으로 계곡에 고립된 이라크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중투하했을 때도 성공률은 80%에 그쳤다”고 지적

- 미군은 지난 일요일(10.19.) 시리아 북부 코바니에서 IS와 싸우고 있는 YPG에 무기, 탄약, 의약품이 담긴 상자 27개를 공중투하했으며 미 국방부는 다음날 “보급품 중 한 개가 낙하 지점을 벗어나 파괴했다”고 설명

\* 외신들은 미 국방부가 파괴했다고 밝힌 보급품과 IS 동영상에 등장한 수류탄 상자가 같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으나 미 국방부는 “IS가 미군 무기를 손에 넣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힘

#### < 10.22.(수) 07시 기준 주요 동향 >

##### (1) 이란 대통령, 이라크에 'IS격퇴' 군사지원 약속

○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어제(10.21.) 알아바디 이라크 총리를 만나 IS 격퇴를 위한 군사적 지원을 약속

-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은 마지막 날까지 IS와 싸우는 이라크와 함께 할 것"이라며 "이라크에 군사적 조언과 무기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로하니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IS의 세력 확산에도 미국이 이라크 정부를 충분히 지원하지 않았다고 비난

-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은 수니파였던 사담 후세인 정권과는 전쟁까지 벌였지만 2003년 미국의 침공 뒤 세워진 이라크의 같은 시아파 정권과는 긴밀한 관계를 이어 옴

- 알아바디 총리는 지난달 초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그저께(10.20.) 이란을 정상방문 중

##### (2) 바그다드 시아파 지역서 연쇄 폭탄테러...최소 21명 사망

○ 어제(10.21.)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시아파 지역에서 연쇄 폭탄테러가 발생해 최소 21명이 사망

- 바그다드 북부 탈리비야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 있던 차량이 폭발하면서 12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부상

- 바그다드 내 다른 지역인 셰이크오마르에서도 사제 폭탄 폭발 사건이

일어나 2명이 사망

- 바그다드 남부의 음식점들에서 일어난 2건의 폭탄테러로 인해 7명이 더 사망

(3) IS, 시리아 동부 데이르알조르 사실상 점령

○ 이라크와 시리아를 침공 중인 IS가 미국 등 다국적군의 공습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리아 동부 데이르알조르를 사실상 점령했다고 시리아인권관측소(SOHR)이 밝힘

- 데이르알조르는 수도 다마스쿠스로부터 북동쪽으로 450km 떨어진 지역으로 다수의 산업시설이 모여있는 공업도시이며 IS가 시리아 내 점령지역을 늘린 것은 2개월 만임

- SOHR 대표는 IS가 데이르알조르를 포위하고 지속적으로 공격한 끝에 현재 절반 이상의 지역을 장악했다고 밝힘

(4) 美국방부 "시리아·이라크 대IS 작전에 4.2억불 지출"

○ 미 국방부는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를 대상으로 벌인 전투에 매일 약 760만 달러를 쓰고 있으며 지금까지 4억2400만 달러가 지출됐다고 발표

(5) 유엔 사무차장 "IS, 야지디족 대량학살 계획"

○ 이반 시모노비치 유엔 인권담당 사무차장은 IS 전투원들이 이라크 소수세력인 야지디족을 대량학살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 이라크의 아르빌과 바그다드 등 현지를 1주일간 시찰하고 유엔본부로 돌아온 그는 "대량학살 계획의 강력한 증거가 있다"면서 IS 대원들이 지난 4개월간 자행한 만행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

< 10.21.(화) 07시 기준 주요 동향 >

(1) 이라크총리 '외국 지상군 파병 반대' 천명

○ 알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어제(10.20.) IS에 대항하기 위한 외국 지상군 파병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힘

- 알아바디 총리는 이라크 시아파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알시스타니를 만난 뒤 "강대국이나 국제적 동맹, 중동 국가에서 온 지상군이 이라크에서 싸울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

- 그는 "외국 지상군을 요구하는 (수니파 지역인) 안바르 주와 살라후딘 주의 형제들은 그런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라크에서 기꺼이 싸우겠다

는 나라도 없고, 이라크를 돌려달라고 할 때 순순히 내주는 나라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함

- 이날 발언은 8월 초부터 시작된 IS에 대한 국제동맹군의 공습이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외국의 지상군이 개입해야 한다는 주문이 높아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 (2) 바그다드서 IS 잇단 자폭테러 일주일새 사망자 100명 넘어

○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압박하고 있는 IS의 자살폭탄 공격이 탱크나 박격포 공격보다 먼저 바그다드 시내로 파고들고 있음

- 이라크군과 미국 주도 국제연합전선의 항전에 IS가 바그다드로 입성하진 못하고 있지만 연쇄 테러가 이미 바그다드를 전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 특히 시아파 거주지역과 사원에 집중된 '또 하나의 전쟁'으로 매일 수십 명의 민간인이 희생되고 있으며 지난 한주 동안만 이미 100명이 넘는 희생자를 냈음

## (3) 이라크 내 교전현황

○ 프랑스 라팔 전투기, 어제(10.20.) 이라크 티크리트 내 이라크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해 IS 목표물(트럭 2대 등)공격

- 프랑스는 이라크 내 IS 척결을 위해 전투기 9대와 급유기를 보냈으며 지상군 투입은 거부, 현재까지 총 3차례 공습 실시

○ 모술댐 인근에서 어제(10.20.) IS의 트럭을 이용한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해 Peshmerga 15명이 사망함(지역언론 보도)

○ IS가 아르빌 서쪽 Makhmur와 Gwer 등을 포격 후 다시 공격을 감행했으나 Peshmerga가 격퇴함(지역언론 보도)

○ 현재 이라크 정부군과 IS는 바그다드 북부에 위치한 이라크 최대 정유지역 Baiji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음

## (4) 美-IS '코바니 혈투'를 보는 5가지 시각(BBC 보도내용)

○ 시리아 코바니 쿠르드족의 강경한 저항과 미국 등 연합전선의 공습으로 IS의 공격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BBC는 이번 전투에 대해 5가지 관점에서 중간평가

① 코바니는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음

- 코바니는 시리아 내전의 운명을 결정짓거나 미국의 IS에 대한 공습작전의 성공을 결정할만한 요소는 아님

- 대신 코바니는 터키 국경과 인접하고 있어 터키의 개입 여부에 따라 IS와의 전쟁에서의 성패가 좌우될수도 있음

② 미 국방부와 IS가 모두 정치선전을 이유로 코바니에서 싸우고 있음

- IS와 미국 모두 코바니의 승리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

③ 이번 코바니 전투에서 지형의 중요성이 드러남

- 코바니는 터키 국경과 접해있어 국경을 넘지 않은 IS의 포위공격을 막을 수 있었음

④ IS가 코바니에 집중하면서 미국과 연합전선이 이들을 섬멸할 수 있는 기회를 줌

- 미 국방부는 IS 대원 수백 명을 코바니 전투에서 사살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IS가 여기저기 흩어진 공격을 펼쳤다면 나올 수 없는 사상자 수임

⑤ IS의 코바니 공격은 IS의 전력 분산 효과를 낳기도 함

- 서부 이라크 전투로 인해 IS가 분산되면서 연합전선이 코바니에서 오랜 시간 이득을 취할 수 있었으나 이라크군의 전력 저하로 안바르주가 IS의 손에 넘어가는 위기에 처함

#### < 10.20.(월) 17시 기준 주요 동향 >

(1) 바그다드 시아파 사원에서 또 다시 자살폭탄 테러 발생...최소 17명 사망

○ 금일(10.20.) 바그다드의 한 시아파 사원에서 또 다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17명이 사망하고 28명이 부상

- 어제(10.19.)도 바그다드 서부 지역의 시아파 사원 입구에서 자폭테러가 일어나 28명이 숨지는 등 최근 며칠간 바그다드 일대에서 잇따른 폭탄테러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있음

(2) 터키, 이라크 쿠르드군의 코바니 진입 지원

○ 터키 정부는 금일(10.20.)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KRG) 군사조직인 페쉬메르가가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 도시 코바니를 방어하도록 터키국경을 넘어 진입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밝힘

- 터키 외무장관은 “우리는 페쉬메르가가 코바니로 넘어가는 것을 돕고 있다”며 페쉬메르가가 IS와 싸우는 시리아 쿠르드 민병대 인민수비대(YPG)를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 터키는 지금까지 YPG가 소속된 시리아 쿠르드 정치세력 민주동맹당(PYD)이 터키의 쿠르드 반군인 쿠르드노동자당(PKK)와 연계됐다고 YPG를 지원하지

않아 왔으며, PKK를 비롯한 터키인이 코바니로 넘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시리아 국적의 쿠르드인에게만 월경을 허용

- 한편, 마수드 바르자니 KRG 수반은 IS가 KRG를 공격했을 당시 터키가 비공개로 KRG에 무기를 지원했다고 밝힌 바 있음

(3) '친 이란' 이라크 신임 내무장관에 미국 경계

○ 진통 끝에 지난 토요일(10.18.) 의회를 통과한 이라크 신임 내무장관 무함마드 살렘 알갑반의 이력과 친(親)이란 성향 때문에 미국 언론이 경계하고 있음

- 이라크의 치안은 군과 경찰이 '보안군'을 구성해 함께 맡는 체제인 만큼 경찰을 지휘하는 내무장관은 실권을 쥔 요직이나 미국 언론은 그가 시아파 무장조직 바드르 소속이라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삼고 있음

- 바드르는 사담 후세인 수니파 정권의 탄압을 피해 이란으로 망명한 이라크 시아파 인사들이 1982년 세운 강경 시아파 조직으로 이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옴

-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후세인 정권이 몰락한 뒤 출범한 시아파 정권하에서 바드르는 수니파 주민을 수없이 공격했고 특히 정권을 등에 업고 경찰조직에까지 침투, 치안을 담당하기는커녕 수니파에 대한 테러에 동조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음

- 워싱턴포스트(WP)는 "인지도가 낮은 알갑반 대신 바드르의 수장인 하디 알아미리가 내무부를 사실상 쥐고 흔들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도

< 10.20.(월) 07시 기준 주요 동향 >

(1) 미군, 코바니 쿠르드군에 무기·의료 보급품 공중투하

○ 미 중부사령부는 터키 접경지역에 위치한 시리아 코바니의 쿠르드군에게 이라크 쿠르드 당국이 제공한 무기와 탄약, 의료보급품을 공중투하했다고 밝힘

- 또한 최근 며칠 새 미군이 코바니 인근에 총 135차례의 공습을 단행했으며 이로 인해 IS의 진격이 저지됐다고 덧붙임

- 다만 "코바니의 안보 상황은 여전히 취약하다. IS는 위협을 계속하고 있으며 쿠르드군은 계속 저항하는 상황"이라고 설명

(2) 호주군 200명, 곧 이라크 입국...법적절차로 UAE서 한달 대기 후

- 호주와 이라크 정부가 UAE에 머물고 있는 호주군 특수부대 병력 200여 명을 이라크에 배치하기로 최종 합의
  - 호주는 미국이 주도하는 IS 격퇴전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달 육군 병력 200여 명을 전방작전기지인 UAE에 파견
  - 그러나 호주정부는 동 병력이 현지 활동 시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보장해 달라고 이라크 정부에 요청해 최종 승인을 얻지 못해 음

(3) 이라크 시아파 사원서 자폭테러로 최소 18명 숨져

- 이라크 바그다드의 한 시아파 사원에서 어제(10.19.)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18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다침
- 바그다드 북부 마르미야에서도 보안 순찰대 근처 길가에 매설된 폭탄이 터져 최소 4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침
  - IS는 미국 주도의 공습과 이라크군의 공세로 바그다드에 입성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폭탄테러로 바그다드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

< 10.19.(일) 09시 기준 주요 동향 >

(1) 이라크 의회 국방·내무장관 승인, 알아바디 정부 구성 완료

- 이라크 의회는 알아바디 이라크 총리 취임 뒤 한달여간 공석이던 국방·내무 장관을 어제(10.18.) 승인
  - 국방장관 : 칼리드 알오베이디, 모술 출신의 수니파 의원, 사담 후세인 정권시절 군 장교를 지냄
  - 내무장관 : 무함마드 살렘 알갑반, 알아바디 총리와 같은 시아파 정파 소속, 과거 반(反) 후세인 운동에 가담
  - \* 기타 쿠르드족 출신 장관 : 부총리 겸 재정부장관(호샤르 제바리 전 외무장관), 여성부 장관(바얀 누리 의원)
    - 알말리키 전총리는 2010년 재선되자 올해 8월 물러날 때까지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려고 국방·내무장관을 비워둔 채 직접 영향력을 행사해 음
    - 미국 정부는 알말리키 전정권 시절 수니파에 대한 소외가 IS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새 정부에 종파간 권력 분배를 압박해 왔음
    - 알아바디 총리는 앞서 지난 9.16일 수니파와 시아파 출신 의원을 각각 국방·내무장관 후보로 지명하고 의회 의결을 요청했으나 부결됐었음
    -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번 의회승인은 "매우 긍정적인 진전"이라며 "두 핵심 장관직은 IS에 맞서 이라크 정부의 힘을 조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라고 밝힘

(2) 미국, IS 격퇴 위해 장기전 준비 중

○ 오스틴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은 미국은 이라크와 시리아 내 IS격퇴전과 관련해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으며 장기전을 준비 중이라고 밝힘

- 그는 내년쯤이면 공습으로 IS 세력이 "상당히 약화해 있을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과 동맹군의 공습이 IS의 보급망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주장

- 또한 성급한 성과에 대한 기대를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오합지졸'이나 마찬가지로인 이라크 정부군을 개조하고 시리아 내에서 역량을 갖춘 반군 지상군 세력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시인

- 그는 "IS 격퇴전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 과정에서 때때로 작전상 후퇴가 있을 수 있다"면서 "특히 이런 후퇴는 수년간의 방치와 엉터리 지휘부 때문에 전력이 약화한 이라크 정부군이 다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문하는 초기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 앞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도 지난 14일(화) IS 격퇴전에 동참하는 20여 개국의 군사 최고지도자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이번 공습은 장기전이 될 것이며, 때로는 전진하는 시점도 있고 후퇴하기도 한다"며 장기전의 불가피성을 역설

(3) 호주 외무장관, "이라크에 지상군 파병 안해"

○ 이라크를 방문 중인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이 이라크에 지상군을 파병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 비숍 장관은 호주는 지상군 파병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이라크와 한 협의 내용에 지상군 파병이 포함돼 있지도 않다고 강조

- 또, 호주는 오로지 이라크 정부와 합의가 된 범위 내에서 이라크군의 임무를 도울 지원병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임

○ 현재 호주는 미국이 주도하는 IS 격퇴 전에 참가하기 위해 육군 공수특전단(SAS) 소속 병력 200명을 전방작전기지인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해놓고 있지만, 이라크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현지에서 한 달째 발이 묶여 있음

- 토니 애벗 호주 총리는 이라크 정부가 SAS 병력의 현지 군사 활동과 관련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주길 기다린다고 밝힌 상황

(4) 스페인, 이라크군 군사훈련 지원 결정



- 스페인 국방장관은 어제(10.18.) 워싱턴을 방문,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스페인은 국제사회의 IS 격퇴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올 연말 이라크 군에 대한 군사훈련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힘
- (5) 바그다드서 연쇄테러로 20여명 사망
  - 그저께(10.17.) 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곳곳에서 차량 폭탄테러 3건이 잇따라 발생해 20여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침
    - 바그다드 내 시아파 거주지역인 발라디아트의 커피숍 근처에 주차된 차가 폭발해 최소 9명이 사망, 수니파 지역인 아드하미야와 카르라다에서도 차량 폭탄테러로 10명 넘게 사망
    - UN안전보장이사회도 지난 10.17.(금) "바그다드와 그 주변지역에서 최근 수일간 IS의 이름으로 벌어진 자살테러, 차량폭탄 테러의 비극이 계속되지 말아야 한다"고 비난
    - 이라크 정부는 현재 IS가 일부를 장악한 안바르주의 주도 라마디에 10.17(금) 새벽부터 통행금지령을 내림

< 10.18.(토) 10시 기준 주요 동향 >

- (1) 이탈리아 군인 280명, 이라크서 IS 대항 쿠르드족 훈련 예정
  -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어제(10.17.) IS에 대항하는 쿠르드족 군대의 훈련을 위해 280명의 군인을 이라크에 파견한다고 밝힘
    - 또한 공중 재급유를 위해 KC-767 비행기와 지역 경찰을 맡게 될 2대의 무인 비행기(드론)도 함께 보낸다고 밝힘
    - IS는 지난 10.14.(화) 자신들의 선전·홍보 책자인 '다비크'의 최신판 표지에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의 오벨리스크 기둥 위에 자신들의 검은색 깃발을 단 사진을 싣고 "우리는 로마를 정복하고, 십자가를 파괴하고, 당신들의 여자를 노예로 삼을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음
- (2) 터키, 'IS 정찰' 미국 무인기에 기지 사용 허용
  - 터키가 이라크와 시리아 내 IS를 정찰하는 미국 무인기(드론)의 자국 내 공군기지(인지를릭 기지) 사용을 허용
    - 다만, 터키 정부는 공습임무를 띤 유인기의 기지 사용은 여전히 허락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터키 내 공군기지 사용 문제를 놓고 갈등을 보여온 미국과 터

키의 불협화음이 다소 해소

- 앞서 터키 정부는 미국측의 터키 공군기지 사용 허가 발표에 대해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내용을 부인해 양국 간 외교적으로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져 왔음

(3) 필리핀 무장세력, 6개월 억류 독일인 2명 석방

○ 필리핀 무장세력 아부사야프는 어제(10.17.) 필리핀 남부 지역에서 6개월 동안 납치 억류했던 독일인 2명을 몸값을 받고 풀어줌

- 필리핀 무장세력은 지난 4월 필리핀 서부에서 요트를 타던 독일인 2명을 납치해 몸값 지불과 독일의 IS 대상 공습 중단을 요구하며 인질을 참수하겠다고 위협

- 필리핀 국방부는 몸값 지불여부에 대해 부인했으나 아부사야프의 대변인은 몸값으로 약 560만 불을 받았다고 밝힘

< 10.17.(금) 19시 기준 주요 동향 >

(1) 호주 정부, 이라크 체류 자국민에 철수 경고

○ 호주 외무부는 어제(10.16, 목) 성명을 통해 이라크와 쿠르드 자치지역에 체류 중인 자국민들에게 즉시 이라크를 떠나라고 경고

- 호주 정부는 "IS로 인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 대한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바그다드 공항에서 민항기가 운항하는 동안 이라크를 당장 떠나라"고 밝힘

\* 현재 이라크에는 서류상으로 약 180여명의 호주인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임

- 호주 정부는 그동안 이라크 내 자국민들에게 가능하면 이라크를 떠날 것을 권고하고 이라크 여행 자제를 요청한 바 있으나 점증하는 IS의 위협을 직접 거론하며 경고 수위를 높인 것은 이번이 처음

(2) IS, 바그다드 인근서 박격포 공격과 폭탄 테러 계속

○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지난 10.15(수) "IS와 벌이는 전투에서 '승리할 전략'이 있다. 바그다드가 IS에 함락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으나 바그다드에서는 이미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음

○ 어제(10.16) 바그다드 인근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로 최소 36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침

- IS는 자신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힘
- 또한 지난 10.14(화) 시아파 거주지역에서 발생해 시아파 민병대 지휘관을 포함한 2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테러 역시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
  - IS는 미국 주도의 공습에도 불구하고 바그다드 서쪽 안바르주를 장악하기 위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음
- 워싱턴포스트(WP)는 이 날 바그다드 국제공항에서 약 26km 떨어진 지점에서 IS의 박격포 공격이 있었다고 밝히고, 현재 안바르 주는 암리야트 알팔루자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IS가 장악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임

### (3) IS, 시리아 코바니 공세 주춤

- 한 달째 이어진 IS의 공격으로 함락 직전에 놓였던 시리아 북부 전략요충지 코바니가 일단 위기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보임
  - BBC는 코바니를 사수하고 있는 쿠르드족 군사령관을 인용, 코바니 대부분 지역에서 IS를 몰아냈으며 IS가 현재 동부 두 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곳에서 후퇴했다고 밝힘
  -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IS의 진격 속도가 늦춰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우리가 이들에게 타격을 입혔다”고 며칠간의 공습 성과를 높이 평가
  - \* 미국을 비롯한 국제연합전선은 하루 동안 14차례의 공습을 실시하는 등 최근 들어 9월 말 시리아 공습 개시 이후 가장 집중적인 공격을 펼침

### (4) IS, 시리아서 노획한 전투기 3대로 비행훈련

- IS가 시리아 정부군으로부터 노획한 전투기 3대로 비행훈련을 했으며 IS에 가담한 이라크 조종사가 IS 조직원들에게 전투기 비행훈련을 시킨 것으로 보도됨
  - IS가 노획한 전투기는 옛 소련제 미그21이나 미그23으로 보이며 시리아 북부 알레포의 공군비행장에서 이륙해 저고도 비행을 실시한 것이 목격됨
  - 다만 이 전투기들이 미사일을 장착해 공격할 수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 그러나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 공습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IS의 비행훈련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힘

< 10.13.(월) 19:30시 기준 주요 동향 >

- (1) IS, 바그다드 공항 근처 진격(미 합참의장)
  - IS는 바그다드 공항 20~25km 부근까지 접근, (박격포나 로켓 등으로) 바그다드를 간접 사격할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마틴 미합참의장)
  - 미국은 바그다드 공항을 사수하는 이라크군을 지원하기 위해 아파치 헬기 동원
  - 그러나 이라크 국방부는 “IS가 바그다드 공항과 가까운 아부 그라이브 지역에 주둔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
  
- (2) 10.12 밤, 이라크군 안바르주 요충지인 히트지역 기지 버리고 철수
  - 동 철수로 인해 히트지역은 완전히 IS 수중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임
  
- (3) 코바니(시리아의 터키접경지대)에서 IS-쿠르드수비대간 교전 지속
  
- (4) 터키정부, 미국과 동맹국에 자국 공군기지 제공을 결정했다는 보도 부인
  - 터키 정부는 동 보도내용과 관련, 아직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
  
- (5) 이란, 국제동맹군 IS공습 맹비난
  - 이란군 참모총장은 “국제동맹군의 공습은 아랍에 외국 군대를 주둔시키려는 포석의 일부”라며 비난
  
- (6) IS가입한 10대 소녀들 성노예 전략
  -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구권 국가를 떠나 IS에 합류한 이들의 10%가량이 10대 소녀(가디언)
  - 프랑스 63명, 영국 50명, 독일 40명, 오스트리아 14명으로 파악
  - 동 여성들은 남성 중심적인 IS 점령지에서 강간과 학대를 당하거나 노예로 팔리고 있다고 함
  - 유엔은 이 지역에서 성노예로 전략한 여성과 소년, 소녀들이 약 1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 10.12.(일) 19:30시 기준 주요 동향 >

- (1) IS, 코바니(시리아의 터키접경지대)에서 시리아 쿠르드민병대(YPG)와 지속 전

투중

- IS는 동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타지역에서 전투원을 끌어모아 코바니로 배치하는 등 병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음
  - 현재 지상군 투입없는 미군 주도의 공습은 무용지물이라는 분석이 부각되고 있음
  - 터키 정부는 코바니에 지상군 투입 시, IS 대응과정에서 자국 내 쿠르드족 반군이 강해지거나 적대 관계인 아사드정권이 반사이익을 얻는 걸 원치 않아 동 사건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2) IS, 수일안에 안바르주 함락 우려

- 현재 안바르주의 군 기지를 장악, 안바르주의 주도인 라마디를 공격하고 있는 IS가 수일내 안바르주를 함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안바르주 의회는 미국의 지상군 투입을 요청해줄 것을 이라크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안바르주 특징 :

- 바그다드와 시리아-이라크 국경 사이에 위치한 수니지역
- 유프라테스강의 핵심 댐인 하디타 댐 위치
- 안바르주가 함락되면 IS가 바그다드를 공격하는 데 공급선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

(3) 이라크 각지에서 대형 폭탄테러 발생

- 디얄라주 북부 카라탑파시(바그다드 북쪽 120km) : 연쇄차량폭탄테러 3건 최소 25명 사망(대부분 페쉬메르가 대원)
- 디얄라주 바쿠바 남부의 시장 : 급조폭발물(IED)로 6명 사망
- 안바르주 라마디시 : 도로매설 폭탄이 터져 IS와 전투에 앞장섰던 안바르주 경찰 총책임자 사망

(4) 영국 군인 12명 아르빌서 쿠르드 민병대 무기 사용법 교육(영국 국방부)

- 영국 군인들은 아르빌에서 약 1주일 교육후, 추후 이라크군 훈련 가능성 있음(BBC)

(5) IS, 모술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자금 확보

- IS가 현재 모술 지역의 상가, 사무실, 주택, 공장시설 등 부동산을 빼앗아 임대료를 걷고 있다고 보도됨(독일 중동전문 온라인 매체 '니까쉬')

\* 니까쉬는 부동산 사업이 원유밀수출보다 더 규모가 크고 안정적일수 있다고 우려

< 10.11.(토) 10:50시 기준 주요 동향 >

(1) 터키 정부, 시리아 온건 반군 지원 약속

- 10.10, 터키는 미 특사들과의 회담에서 IS 격퇴를 위한 시리아 온건반군의 훈련 및 장비 지원을 약속
- 미국, NATO는 터키정부의 코바니사태 개입을 위해 지속 설득중이지만, 터키는 위와 같은 소극적인 지원만 약속할 뿐 지상군 투입 불가 입장 고수

(2) 미국과 터키, 시리아 완충지대 설정 놓고 치열한 외교전

- 터키: IS격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시리아 북부(코바니 일대 포함)를 완충지대로 설정 요구(비행금지구역, 쿠르드족 난민 수용 및 온건 반군 훈련 공간으로 활용)
- 미국: 완충지대 설정이 자칫 시리아 정부뿐 아니라, 주변 쿠르드족을 자극할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

(3) 코바니에서 터키로 피신한 난민들, 시리아 또는 이라크로 돌아가는 유랑민 신세(UNHCR 유엔난민기구)

- IS의 코바니 공격으로 터키로 피신했던 시리아계 쿠르드족 난민은 약 17만 2천명으로 집계되며, 현재 친지 및 친구의 도움을 받기 위해 이라크 및 시리아로 재이동중
  - 약 1,600명 : 이라크 니네바주의 난민캠프로 이동
  - 약 1,750명 : 시리아 내 쿠르드족 거주지역인 카미실로로 이동

\* 터키내에서는 시리아 쿠르드족을 지원하라는 시위가 격화되고 있으나, 에르도간 터키 대통령은 “터키는 테러리스트(IS)의 과격행동에 휘둘려 국내대외 정책을 바꾸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지상군 투입 불가 입장을 고수중

(4) 스페인 군인 300명 파병 계획 발표

- 10.10, 스페인은 IS와 싸우는 이라크군을 훈련시키기 위해 군인 300명을 파병할 계획이라고 밝힘(미국과의 협력 차원)
- 7~8주 동안 이라크에 머물며 이라크군에게 폭발물 처리, 지뢰 제거, 특수 작전 등을 훈련시킬 예정(전투는 참여치 않음)

\* 스페인은 미 이라크 침공 당시 평화유지군으로 병력을 보냈으며 2004년 이들을 철수시킨 이후 이번이 첫 이라크 병력 파견

(5) 호주 공습 지원 경과

- 10.3 : 호주 의회 공습 및 병력파견 승인
  - F/A-18 전투기 8대, E-7A 웨지테일 조기경보기 1대, KC-30A 공중급유수송기 1대를 UAE로 파견
- 10.5 : 이라크에서 첫 비행(공격 가하지 않음)
- 10.8 : 첫 공습 개시(F/A-18 슈퍼호넷 전투기가 IS의 시설물에 2발의 폭탄을 투하)
- 현재 : 특수부대와 지원부대 등 이라크 육군을 도울 병력 600명 UAE로 파견 대기중

< 10.8.(수) 16:30시 기준 주요 동향 >

(1) IS, 코바니(시리아의 터키접경지대)에 공격 재개

- 10.7, IS는 국제동맹군의 공습과 쿠르드 민병대(YPG)의 반격에 밀려 코바니 외곽으로 물러났으나, 금일 다시 진입을 시도 및 공격 재개
  - \* IS는 9.16일부터 중화기를 동원해 코바니를 진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난민 18만 6000명이 터키로 피신
  - \* 양측의 사망자는 최소 412명(10.6 기준, 시리아인권관측소 SOHR)

(2) 터키정부 코바니 사태에 소극적 입장

- 터키 동부지역에서 일부 시민들이 코바니내 IS격퇴를 위한 터키의 개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바 있으나, 에르도간 터키 총리는 개입할 의사가 없음을 밝힘
- 주요 이유
  - 터키는 IS에 대항하는 시리아 내 쿠르드세력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연계된 PKK가 세력을 키워 터키 정부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우려
    - \* PKK(쿠르드노동자당) : 쿠르드 독립을 위해 30여년간 터키정부와 내전 중인 터키내 쿠르드 반군조직(국제사회는 테러조직으로 지정)
  - 터키는 시리아 내 IS 격퇴가 국경 교전 등으로 양측 관계인 시리아 알아사드 시아정권에 도움을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3) 캐나다 의회 이라크내 IS 공습 승인

- 금번 승인으로 인해 캐나다는 CF-18 전투기 6대, 공중급유기 1대, 정찰기 2대, 수송기 1대 및 공군 병력 600명을 중동에 파견 예정
  - \* 캐나다는 미국의 요청으로 특수부대 69명을 이라크군 자문을 위해 파견한 바 있음

(4) 영국, 런던 내 IS 테러 기도 첫 적발

- 10.7 오전 영국 경찰은 런던을 상대로 테러 공격을 모의한 용의자 4명을 체포
  - \* 최근 IS 지도자들이 서방의 동조세력들에게 테러 공격을 감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 미국 우방국들의 각별한 주의 필요

(5) 이라크 피란민 175만명

- 이라크 국내 다른 지역으로 피란한 이라크 주민의 수가 175만3천302 명으로 집계(10.7, 국제이주기구(IOM))
- 이라크 전체인구(약 3천259만 명)의 5.4% 정도를 차지하며, 이 중 대부분은 쿠르트 자치지역으로 유입

< 10.7.(화) 16:45시 기준 주요 동향 >

(1) IS, 코바니(시리아의 터키접경지대) 일부 장악

- 10.6, IS가 코바니의 주 거주민인 쿠르드족과 격렬한 시가전을벌인 끝에 코바니 동부 세 구역을 점령(전투 지속중)
  - 미국 등 국제연합전선이 IS를 향한 공습을 계속하고 있지만 IS의 코바니 진격을막는 데는 역부족
  - 네덜란드에서는 6일 밤 쿠르드족 수백 명이 헤이그의 의사당을 점거하고 코바니를 구하기 위한 더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임
- 터키 총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IS 격퇴전에 다른 나라들이 자신의 역할을 한다면 터키 역시 시리아에 지상군을 기꺼이 투입하겠다”며 터키 지상군의 코바니 투입 가능성을 시사





(2) 터키 시리아 접경지역 석유밀반입 검색 강화

- 최근 터키 정부는 IS의 돈줄인 원유 밀매 경로(시리아 접경)에 대한 통제 강화 및 경제적 압박 시작
- IS는 이라크 및 시리아의 유전과 정유시설을 통해 하루 32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추산
  - \* 시리아에서 터키로 3km에 달하는 고가의 광섬유 관을 15m 땅속에 묻어 경유를 밀매하기도 했으나, 터키 정부는 몇 달 전 이들 관을 파내는 작업에 착수

(3) 국제동맹군 오폭에 이라크 민간인 18명 사망

- 10.6 미군 주도 동맹군이 이라크 안바르주 히트마을의 IS 주둔지를 공격하는 과

정에서 민간인이 사는 아파트와 시장을 실수로 폭격

(4) 일본대학생 IS 가담하려다 적발

- 일본 경시청은 이슬람국가에 가담하기 위해 시리아에 가려고 준비하던 26살의 홋카이도대학 휴학생을 '사전(私戰) 예비 및 음모' 혐의로 조사중
- 최근들어 IS는 SNS 공모를 통해 미국, 유럽, 아시아 젊은이들을 IS전투원으로 끌어들이고 있음
  - \* 현재 IS가담 외국인은 약 80개국 출신 1만5000명으로 추산(미정보당국 통계)

< 10.6.(월) 10:40시 기준 주요 동향 >

(1) 호주 공군 소속 전투기, 이라크에서 첫 전투임무 수행

- UAE 알미나드 공군기지에 대기 중이던 호주 공군 소속 전투기 6대 중 2대 (F/A-18 슈퍼호넷)가 이라크로 발진해 전투임무 수행후 알미나드 기지로 무사히 귀환(호주 국방부)

(2) 네덜란드, IS 공습 위한 이라크내 비행 시작

- 10.5 네덜란드 F-16전투기 이라크 내 비행 시작
- 동 전투기들은 근접 항공지원이나 쿠르드족에 대한 지원 공습 등에 활용될 것으로 알려짐
  - \* 다국적군 공습 현황
    - 이라크 공습 가담 : 미국, 영국, 프랑스
    - 시리아 공습 가담 : 미국, 바레인, 요르단, 카타르, 사우디, UAE
  - \* 현재 네덜란드 등 서방국가들은 UN의 결정없는 시리아 내 공습 동참을 꺼리고 있음

(3) IS, 코바니(Kobane, 시리아의 터키접경지대에 위치한 쿠르드족의 최대 전략적 요충지) 1km앞까지 진격

- 10.5 시리아 외무차관은 IS가 코바니 남동쪽 1km, 다른 지역에도 2~3km거리 까지 와있다고 언급(코바니가 3면에 에워싸임)
- 현재 미국 등 국제연합전선이 IS에 대한 공습중이나, 쿠르드족 지상군과 손발이 맞지 않아 IS 를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하고 있음
  - \* 현재 IS는 전투기 접근시 무개진지(無蓋陣地)를 버리고 흩어져서 숨기 때문에 공습의 한계가 있음(시리아 외무차관)



- (4) 미군 아파치 헬기, 이라크내 IS 공격에 첫 투입
- 10.4 이라크 안바르주에 있는 IS목표물에 대한 아파치의 일련의 폭격이 있었음(미 중부사령부)
  - 10.3일 기준, 미국은 IS에 대해 총 334회 공습 시도(이라크 248, 시리아 86)
- (5) Maersk Oil (덴마크) 쿠르드 업무 재개

- 지난 8월, 아르빌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Maersk Oil은 IS의 위협을 이유로 철수
- 동사는 최근 쿠르드에서의 업무를 재개하였으며, 사장(Jakob Thomasen)은 “우리는 쿠르드의 불안이Maersk Oil의 장기계획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
  - \* 현재 Maersk Oil은 Sarsang, PIRAMAGRUN, ZALA DZE 지분참여중

< 10.5.(일) 15시 기준 주요 동향 >

(1) IS, 이라크북부 지역에서 이라크 정부군 헬기 격추(10.3)

- 이날 IS 대원은 이라크 북부 베이지(정유공장 위치)와 알세니야 마을 사이에서 정부군 소속의 Mi-35 헬기 한 대를 격추(해당 헬기 조종사 2명 사망)

\* IS가 상공의 비행기 격추 능력 있음을 입증

(2) 캐나다 정부 이라크내 IS 공습 단행 예정

- 10.3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미정부의 요청에 따라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이라크 공습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하퍼 총리는 사태가 시리아로 확대되면 마찬가지로 공습에 참여할 수 있지만, 지상군 투입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

\* 캐나다 정부는 현재 쿠르드족을 지원하기 위해 20명 이상의 군사 전문가를 이라크로 파견한 상태

(3) 호주 정부, IS공습 참여 최종 승인(10.3)

- 현재 UAE 알미나드 공군기지에 대기 중인 호주 공군 소속 전투기 6대가 IS 공습 작전에 참여할 것으로 보임

(4) 우리 외교부는 터키내 시리아와의 국경 10km 이내에 대한 적색경보(철수권고) 발령키로 밝힘(10.3)

- 최근 미국의 시리아내 IS공습으로 인한 터키-시리아 접경 지역의 치안 상황 악화를 감안하여 결정
- 터키를 방문할 관광객들의 경우 적색경보 지역에 대한 방문 연기 또는 취소 필요

(5) 국제연합군의 지속적 추가 공습에도 IS 시리아 쿠르드족 본거지에 공세 지속

- 지난 9.15일부터 IS는 터키접경 마을(코바니)을 차지하기 위해 YPG(쿠르드족 민병대)와 연일 격전중